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311호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1)

오종문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부원장

- I. AI 인권과 기술의 발전
- II. AI의 과제와 기술의 물결은 어디로
- III. AI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방안

I. AI 인권과 기술의 발전

AI 인권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등장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AI 기술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AI는 이제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으며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AI 기술과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AI를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딥러닝의 혁신(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복잡한 패턴을 인식)과 생성 AI의 등장(챗GPT, 미드저니 등 생성형 AI 모델의 등장으로 AI는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수준) 그리고 강화 학습(알파고와 같은 강화 학습 모델은 게임, 로봇 제어 등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실제 세계 문제 해결에도 적용)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II. AI의 과제와 기술의 물결은 어디로

AI는 미래의 삶에 기대와 함께 새로운 과제를 안겨줍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술의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인간의 업무 능력과 일상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생산성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회 문제 해결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수 있

습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과 개인의 정보를 침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정보 침해와 관련해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의 정교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한 가짜 사진 확산이 선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미국의 초당파적 시민사회 단체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NLP)’는 8월 28일(현지시간) “11월 대선을 앞두고 허위 주장과 가짜 지지를 담은 게시물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576건의 조작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NLP 분석 결과 특정 후보자의 외모·평판을 조작한 이미지 조작 사진이 240건(4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후보 지지를 왜곡하는 조작 사진이 100건(17%),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미지 91건(16%), 선거 제도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이미지 74건(13%), 후보 정책·공약을 오도하는 이미지 71건(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²⁾ AI가 발전할수록 후보자를 왜곡하거나 거짓 영상과 이미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AI를 이용한 허위정보 유통에 대비해야 합니다.

AI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전망과 인간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과연 AI는 인간의 동반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발전하면 이를 개발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은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의 물결의 적응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떠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Ⅲ. AI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방안

AI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³⁾ 첫째, 국가의 역할 강화입니다. 국가는 AI에 대한 적절한 감독 체계와 규제 수단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확보입니다.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투명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는 참여 보장입니다. AI의 개발, 배치, 사용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집

단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AI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국제 규범 준수입니다. 각국의 AI 관련 법규는 국제 인권규범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AI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감시,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AI 인권이라는 렌즈를 통해 AI가 인간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AI가 인간의 자유와 권리(표현의 자유, 사생활 침해 방지, 차별 금지 등), 안전(신체적 안전, 정보 보안 등), 존엄성(인간으로서의 가치 존중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AI 인권의 핵심입니다.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 감시,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AI 기술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2024/11/22)

※코리아연구원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 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CMS자동이체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직접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처로 전화(02-733-3348)주시면 더 쉽습니다.

※온라인 송금

우리은행 1005-100-937962(예금주: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 1) '퍼플렉시티'라는 AI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퍼플렉시티, <https://www.perplexity.ai/> (검색일: 2024년 11월 22일).
- 2) 중앙일보, 미국 대선도 혼드는 딥페이크, AI 챗봇 활용한 가짜사진 무차별 유포; <https://www.joonggang.co.kr/article/25274118> <https://www.joonggang.co.kr/article/25274118> (검색일: 2024년 11월 22일).